

한계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도전하라.

- 이름: 조아라
- 근무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동남아·태평양 지역본부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UNODC ROSEAP)
- 근무부서: 국제형사사법공조(Cross-borde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부서
- 직위: 인턴
- 지원 경로: 개별지원
- 근무 기간: 2018.04.16-2018.08.31

모두가, 모든 아이들이 “조(좋은)아라” 하는 세상을 꿈꾸는 여정.

고등학교 때 우연히 하게 된 봉사활동을 계기로 개인적인 성공과 명예를 우선시 하였던 가치관에 변화가 찾아왔다. 당시 나는 나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권리들을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아동의 권리는 먼저 보호해주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동이 스스로 그 상황을 타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와 닿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시작했던 것이 교육권에서 배제된 네팔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단체를 돕는 것이었다. 이후 실제로 완공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수업을 듣기도 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받아 보았을 때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개인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는 사회에서 나만 잘살기 위한 삶을 사는 것보다 사회의 선순환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그렇게 나만 “좋아라”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모두가, 특히 지구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좋아라” 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학부 때는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다양한 NGO에서 아동인권옹호 활동 및 봉사활동을 하며 틈틈이 언어공부를 병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부 마지막 학기에 유엔청년봉사단(Youth UNV)으로 키르기스스탄에 소재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지원하여 처음으로 국제기구에 문을 두드렸지만, 현지기구 담당자와의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다. 40분가량의 최종면접을 보면서 면접관들이 실질적으로 바로 실전에 투입되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 느껴졌다. 단순히 내가 이전에 해온 활동들의 타이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때의 경험들이 정확히 직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불안한 국가에 사무소가 소재해있는 경우, 이에 잘 적응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묻는 현실적인 질문도 이어졌다. 비록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UN이 어떠한 인재상을 추구하는지, 단순히 열정을 내세우기보다 내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고 어떤 부분들을 어필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이런 과정들을 토대로 이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국제기구들의 UNV와 인턴 공고들이 올라올 때마다 해당 공고의 프로젝트 및 직무를 면밀히 살펴보고, 내가 그 필요군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시행착오와 성찰의 과정들을 거치며 스스로를 다듬고 있던 중, 감사하게도 석사 과정 중에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 동남아·태평양 지부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여전히 스스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많았기에, 프로젝트 매니저의 인터뷰를 거쳐 1차적으로 인턴합격통보를 받은 후에는 UNODC 내부의 선발절차를 기다리며 국제사법공조의 근본적 개념부터 제반적인 상황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국제기구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아동인권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상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불안정한 국가를 방문하면 종종 “원(One) 달러, 원 달러” 를 외치는 아이들을 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 안타까운 마음에 관광객들이 선뜻 꺼낸 이 일(一) 달러가 아이들에게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오는지를 월드비전의 “Child Safe Tourism” 캠페인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다. 이 돈은 보통 돈을 받은 아이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기보다 아이들에게 구걸을 시킨 범죄조직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 이에 따라, 아동을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보는 범죄조직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면서 낮에는 구걸, 저녁에는 아동 성 착취를 하는 범죄 형태 또한 양산되고 있다. 이 캠페인을 계기로 이러한 범죄 양상이 두드러지는 지역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에서 아동인권에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형태의 관광업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는 탐색적 연구논문을 작성해 발표하게 되었다. 이 논문을 작성하며 다른 나라에서 방문한 관광객들이 아동 성 착취를 하는 경우, 처벌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실정과 실질적 처벌을 위해서는 관광객을 송출한 국가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한 공식적 증거 확보 및 범죄인 인도가 필요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학부 때 수강했던 법학개론, 국제법 수업 외에 법과는 거리가 멀었던 내가 국가 간 증거를 이관하는 절차를 다룬 형사사법 공조(Mutual Legal Assistance 이하 MLA)와 범죄인 인도(Extradition)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런 계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아동인권과는 다소 동떨어져 보이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이하 UNODC)를 알게 된 것도 이 덕분이었다. UNODC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기구일 수 있으나, 전 세계적인 불법 마약 유통 및 관련 범죄와 테러, 인신매매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범죄 등을 연구, 조사하고 협약, 조약 등의 제도적 장치를 구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제도적 장치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내가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던 동남아·태평양 지역본부의 형사사법 시스템(Criminal Justice Systems)국에는 국제 형사사법 공조(Cross-borde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부서와 아동성범죄 방지(Combating Child Sex Offenses) 부서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법공조뿐 아니라 동남아 내 아동성범죄 실태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나는 이 중에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부서에

속하여 어떤 특정한 범죄를 한정하기보다 동남아 내 국가들의 국제형사사법공조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속해 업무를 맡게 되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는 것.

내가 속하였던 프로젝트는 동남아 지역 내 국가들 중에서도 공조기반이 가장 취약하거나 세세한 가이드가 필요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하 CLMV)을 타겟팅하였다. CLMV 정부관계자들을 상대로 MLA와 범죄인 인도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적 자문, 선진국의 우수한 사례 제시 등, 실용적이고 적용 가능한 가이드를 개별국가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제공하는 워크샵을 진행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된 업무였다. 인턴십의 초반에는 워크샵에서 교육할 내용 준비를 위해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자료를 브리핑하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되었다. CLMV에 단일화된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이 얼마나 중요한지, MLA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요청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수사기관 간의 공조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등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 역시 워크샵에서 강의를 수강할 사람(trainee)의 시선에서 어떤 부분에서 갈증을 느끼고 궁금한지 제시하여 더 풍성한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했다.

본격적으로 워크샵 준비를 하면서는 팀에 많은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UN에서 워크샵을 개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볼 수 있었다. 프로젝트 기금(fund)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절차부터 도너(donor)에게 프로젝트 진행 상태를 보고하는 컨퍼런스콜, 각 국가 사무소와의 협력 등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참여하였다. CLMV 각 국가에서 MLA와 범죄인 인도를 주제로 두 번씩 워크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초청장 및 외교문서(Note Verbale), 컨셉트 노트(concept note)를 각 정부기관에 돌리는 작업부터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변수와 느린 행정절차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MLA 촉진을 위한 워크샵들을 마무리하고 난 후, 범죄인 인도 관련 워크샵을 준비할 때에는 확실히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칠 때 어떤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었고,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어디와 직접 연락해야 하는 지 등을 알아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였다. 국제기구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워크샵 준비 막바지에는 CLMV 개별국가의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포함한 MLA, 범죄인 인도에 관련된 최신 법 및 조약들을 수집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2004년, ASEAN 가입국 모두가 사인(sign)한 지역 형사사법공조 다자조약(ASEAN 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이 있기는 해도 이를 근거로 MLA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은 개별 국가마다 달라, 양자조약 혹은 각 개별국의 MLA 법이나 조항이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UNODC는 자체적인 법령정리시스템 “Sherloc” 을 구축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의 자발적인 업로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법령들은 상당히 오래된 법이거나 최신 개정된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국가사무소와 정부기관 담당자에

게 직접 요청하는 식으로 법과 조약들을 전달받아 수집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매니저, 컨설턴트를 도와 교육자료 준비함과 동시에 행정적인 절차들도 밟아나갔다. 또한, 올 5월 본부에서 업데이트 한 “MLA Writer Tool” 을 분석하여 CLMV 국가들이 MLA 요청서(request)를 작성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였고, 이를 교육 내용에 포함할 수 있었다. 워크샵들을 마친 후, 트레이닝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지 정리와 워크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성과를 정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의 인턴 업무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목표와 확신이 있다면 한계를 설정하지 않기.

사실 인턴을 시작하기 전, 나의 관심과 접근은 아동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이었지만 실제로 수행한 인턴으로서의 업무는 한 범죄에 특정하기보다 MLA와 범죄인 인도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절차적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때문에 세세한 절차적 측면만 다루어 본래 의도하였던 인턴십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절차적 과정을 더욱 자세하게 알게 됨에 따라 어떤 부분이 문제였기 때문에 아동성관광객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게 어려운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성범죄 방지 부서의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어 동남아 내 개별 국가들의 실태 및 그간 어떤 권고들이 제시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나처럼 직무로 인해 지원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아직 전문가(specialist)의 단계가 아닌 인턴 수준에서라면, 어느 정도 본인의 필드의 연관성과 관심사가 일치할 때 계속해서 지원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생각보다 업무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접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주변 부서와의 교류를 통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자문을 구할 기회가 생긴다.

또한, 진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소통(communication)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 나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다거나 해외에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통을 연상하면 언어적 장벽을 항상 먼저 걱정하였다. 하지만 외국어 구사 능력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하면서 본인의 의견과 의사의 핵심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메일이 공문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대다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문 작성 능력이 더 중요히 여겨지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서면(written) 소통과 대면(face-to-face) 의사소통에서 모두 요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지역본부 및 국가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국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큰 이점(advantage)이 된다. 해당 국가에 관련된 최신 자료를 구하고 검토할 때 영문 자료보다는 그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동남아 국가들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도움과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갓 국제기구에 발을 들여 보았던 동기로서 조언을 하자면 꼭 본인의 역량에 한계치를 지레 설정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다. 본인이 기여하고 싶은 분

야가 있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관련된 직무가 있는 다양한 기구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면접에서 혹은 서류단계에서 떨어지는 것이 내 역량이 부족해서 일수도 있지만, 해당 직무에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었을 뿐이었을 수도 있다. 계속 도전하다보면 나를 필요로 하는 기구를 꼭 만날 수 있다. 인턴을 하며 만났던 많은 컨설턴트와 인턴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특정한 기구만을 공략해서 지원했다기보다는 자신이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기구들의 문을 두드리다가 일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UN에서의 인턴 경험은 단순히 커리어에 한 줄을 추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전문 분야를 좁혀가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좀 더 큰 그림을 보며 도전할 것을 권한다.

여정의 다음을 시작하며.

약 5개월간의 인턴십을 마친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신 프로젝트 매니저님과 조직 내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준 사무실의 동료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인턴십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도 늘 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의 경험 역시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얼마만큼 다양한 직원들과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쉬운 점도 많지만, 후회가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살려 석사과정을 마치고, 앞으로도 이를 기반으로 “모든 아이들이 좋아라” 할 수 있는 지구마을을 위해 계속 정진하려 한다.

이 수기가 내가 했던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용기를 내 국제기구의 문을 두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내파도, 석사가 없는 학사 졸업자도 할 수 있다. 본인의 한계를 먼저 걱정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준비하고, 도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본 수기를 마친다. /끝/

<별첨>



UN 동남아·태평양
지역본부 앞에서
인턴을 마치며



인턴의 여정을 함께 한
소중한 인턴 친구들과



워크숍 진행 중